

광주시·전남도 송·신년 기자회견

살기·즐기기·기업하기 좋은 광주로

강기정 시장

일자리 늘려 청년 떠나지 않는 도시 구축을 성과 통합돌봄·복합쇼핑몰 유치 꼽아

강기정 광주시장은 27일 "새해에는 더 (살기·즐기기·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송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올 한 해 위기는 극복했고, 성과는 축적됐다"며 "이제는 산업은 키우고, 지역기업은 지키고, 기업 유치는 늘리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또 인공지능(AI)과 미래차를 양 날개로 도시 전체를 첨단 기술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실증도시로 구축하고, 해외 판로개척과 수출 활성화 등 기존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영기업 5개, 혁신기업 200개 유치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강 시장은 이어 교통 대책으로는 "길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게 하고, 막힌 곳은 뚫고, 끊어진 곳은 연결 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4월 시작하는 동광주 나들목(IC)~광산 IC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광주 3순환도로 건설 추진으로 대도시권 교통망을 더 빠르게 연결하고 효천역을 경유하는 광주~나주 광역철도, 경전선 개량사업으로 철도 중심 광역 교통망을 완성하겠다는 게 강 시장의 계획이다.

강 시장은 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완공 시점인 2026년에 맞춰 지하철과 대중교통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간선급행체계(BRT), 수요응답형 버스(DRT),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과 지능형 교통체계(C-ITS) 구축 등도 예고했다.

강 시장은 고질적인 청년인구 외부 유출 문제와 관련해선 "정주·교육·일자리 체계를 구축해 누구나 교육받고, 일하고,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힌 뒤, AI·창업 인재 양성에 더해 지역 산업·기업 수요에 맞춘 단계별 인재 양성 사다리를 완성하고 공공 인프라와 민간 투자를 결합해 다양한 청년 주거



공간 조성 계획 등을 덧붙였다.

강 시장은 올해 최대 시정 성과로 인정 받은 통합돌봄 정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통합 돌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90% 이하로, 긴급돌봄 대상 중위소득 기준은 100%에서 120%로 완화하는 등 제도를 더욱 강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 밖에도 2023년 한 해 대표적인 시정 성과로는 24시 공공심아어린이병원, 근로자 반값 아침 한끼, 광주다움 통합돌봄 등 이른바 '시민의 행복을 높인 정책'들과 더 현대 광주 등 복합쇼핑몰 3종 세트에서 시작된 '몰쟁 도시' 밀그림, 투자·인프라·인재 양성을 통한 '메이드 인 광주 창업' 분위기 조성, 5개 자치구별 산업 거점 조성 등을 꼽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람 모여드는 전남 행복시대 열 것

김영록 지사

셋째아이 이상 출산 가정 1억 지급 검토 내년 지방소멸 위기 극복 원년 만들겠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27일 2024년을 '빛나는 지방시대 1번지'와 '사람이 모여드는 전남 행복시대'로 만들겠다는 도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전남도는 특히 내년을 '지방소멸 위기 극복 원년'으로 선포하고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출산율 제고에 두기로 했다. 우선 시·군과 협의해 셋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에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 지사는 2023년 도정의 주요 성과로 내년 국고 예산 역대 최대 9조7000억원 확보와 함께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광주·전남 첨단도로 복합단지, AI 첨단 농업용 융복합지구,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등 대도약을 이끌 총사업비 3조 5000억원 규모의 핵심 신규사업이 대거 반영된 점을 꼽았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글로벌 초격차 시대, 전남의 위상을 높이고 더 나은 미래를 담보할 대형 사업들의 기반을 쌓고 기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사람이 모여드는 전남행복시대'를 향한 값진 성과를 일궈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체적으로 국제행사 분야에서는 15년 만에 전남에서 열린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 개최로 역대 최고의 국민통합, 민생제전이라는 평가를 받은 점이 성과로 꼽힌다. 1000만 흥행을 이끈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국제수목비엔날레, 국제농업박람회, 국제남도음식문화관전지, 김대중 평화회의 등 대규모 이벤트를 통해 글로벌 전남의 브랜드를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116년 간 지역경제의 버팀목이었던 화순 폐광지역에 5600억원을 투입하는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본격 진행되고 이차전지·수소 등 미래첨단 산업에 대한 21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가 2024년부터 실현될 예정이다. 호남권 최초 전철인 광주~나주 광역철도 및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예타 대상 선정 등 부족한 기반시설도



찾기하고 있다. 최근 광주시와 광주 민간공항을 오는 2025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한 것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지사는 "국가적으로 근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지방이라도 먼저 시도해야겠다는 의미로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일부 프로젝트를 희생하더라도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김 지사는 대만이 260km에 달하는 반도체산업 남북벨트를 조성한 것처럼 균형발전을 위해 첨단대기업이 지방에 갈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세계로 뚫히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위해 내내도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사를 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준석 국힘 탈당...신당 창당 선언

"보름달 지고 초승달 차오른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탈당과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한 음식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한다. 동시에 국민의힘에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2011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비대위원 겸직 영입으로 정치에 입문하며 입당했다. 2016년 탄핵 정국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합류했다.

이후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지도부에 합류하면서 '진정'에 복귀했지만, 이번엔 두 번째 탈당을 하게 됐다. 12년 전 자신의 정치 입문일인 '12월 27일'을 탈당 디데이로 삼았다.

이 전 대표는 회견에서 "과거의 영광과 유산에 미련을 둔 사람은 선명한 미래를 그릴 수 없다"며 "오늘 내 선택은 내 개인에 대한 처우, 나에게 가해진 아픈 기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고개를 들어 과거가 아닌 미래를 봤다. 비상 상태에 놓인 것은 당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다. 변화가 없는 정치판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도 누군가는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서도 상대를 악으로 상징하고 청산하는 것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시민들을 이끌려 한다"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하기도 했다.

또 "상대 정치세력을 악의 상징, 빌런(악당)으로 만들어 몰로세움에 세우는 검무사 정치는 월륜, 즉 보름달과 같아지게 돼 있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생산적인 정치는 월신, 초승달과 같이 차오른다"라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盧·文정부 외교통 박선원

민주, 4호 총선 인재 영입

더불어민주당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박선원(60)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총선 인재로 영입했다.

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인재영입 행사를 열고 박 전 차장과 강정희(59) 전 대한외교협회 상근 부회장을 각각 4·5호 영입 인재로 발표했다.

박 전 차장은 나주 출신으로 1982년 연세대 경영학과에 입학해 반미 성향 조직인 '삼민투'의 연세대 위원장을 지낸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세대다. 1985년 광주 미국문화원 접거 사건 배후로 저목돼 수감생활도 했다.

서울 출신인 강 전 부회장은 연세대 원주의과대학을 졸업한 의료인으로, 기피 과목인 흉부외과를 전공해 2004년 개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재명 "이 전 대표 연락 기다리는 중"

"모든길 열어놓고 대화하겠다"

인천공단 소방서 찾아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이낙연 전 대표가 여러 말씀을 해주고 있고, 나도 계속 연락하고 만나서 통합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천공단소방서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지금 만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는데 (이 전 대표가) 연락을 주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전 대표의 연락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놓고 대화하고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우리 국민의 삶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어서 야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며 "내년 총선은 매우 중요한 정치 행사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여서 혁신과 통합을 통해 반드시 그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7일 인천 남동구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를 인명 피해 없이 진압한 인천공단소방서를 찾아 소방대원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 대표는 2020년 4월부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것을 언급하면서 "국가직이 되고 나서 나아진 게 있느냐"며 "인력과 예산 총원이 제일 중요한 일 일텐데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9년 1954-2023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 2024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신·편입생모집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곳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그대를 기다립니다!

**학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학 과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인문 사회	신 학 과		○
	한국어교육학과		○
	복지상담융합학부		○
사범	유아교육과		○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
총 계			○○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 3(수) ~ 6(토) · 전형일: 2024. 1. 12(금)

■ 학부 편입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 원 외	정 원 외
인문	신 학 과	○○	○	
	한국어교육학과	○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	○	
사범	유아교육과	○		○
예능	음악학부	○○		

▶ 원서접수: 2024. 1. 11(목) ~ 24(수)  
 전형일: 2024. 1. 26(금) 오후 2시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